군종주보

2024년 6월 2일(제1196호)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예수님의 몸과 피는 '사랑' 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이날은 빵과 포도주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죠.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체성사, 곧 미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미사 안에서 모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는 단순한 빵과 포도주가 아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나누는 일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군가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건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는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2천 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당신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기 전까지 내어주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미사, 아무렇지 않게 받아 모시는 성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을 공간조차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일은 주님과 일치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성체성사가 지닌 사랑의 신비를 이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내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여 이번 한 주간동안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며 그분과 일치를 이루고, 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박형석(리피엘) 신부
한성대(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당 주임

제 1 독 서	탈출 24,3-8
화 답 송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제 2 독 서	히브 9,11-15
부 속 가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마르 14,12-16.22-26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서한집

열네 번째 서한

제가 해마다 짧게나마 페낭에 있는 조선 신학생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저들이 한 장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서한이 중간에서 분실되거나 신학교 교장 신부님이 이 서한들을 가로채고 학생들에게 전해 주지 않았는지요? 저들의 마지막 서한을 보면,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저한테서 한 번도 위로의 서한을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저를 몹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크게 언짢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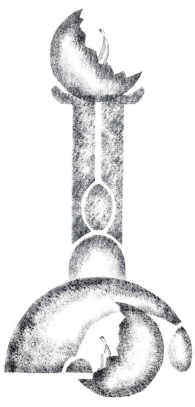
한 가지 청을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신부님께서 조선의 모든 교우들에게 줄 만큼 묵주를 갖고 있지는 못하실 줄 잘 압니다. 신부님께서 주실 수 없는 것을 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신부님께서 주실 마음이 있기만 하다면 주실 수 있는 것을 청합니다.

묵주를 견고하게 잘 만드는 도구를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묵주 만드는 집게를 구하실 수 있으면 하나나 여러 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신부님께서는 성모님께 바치는 묵주를 조선 교우들에게 최대한으로 많이 선물하시는 셈이 되겠습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묵주 만드는 금빛 나는 구리 철사를 많이 보내주시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붉은 색 나는 구리 철사를 만드는 것밖에 모릅니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서한집』 발췌, 청주교구 양업교회사연구소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품나게 줘라

모양 빠지게
챙기지 마라.

줘야 할 거면,
맘 편히 줘라.
그래야 품나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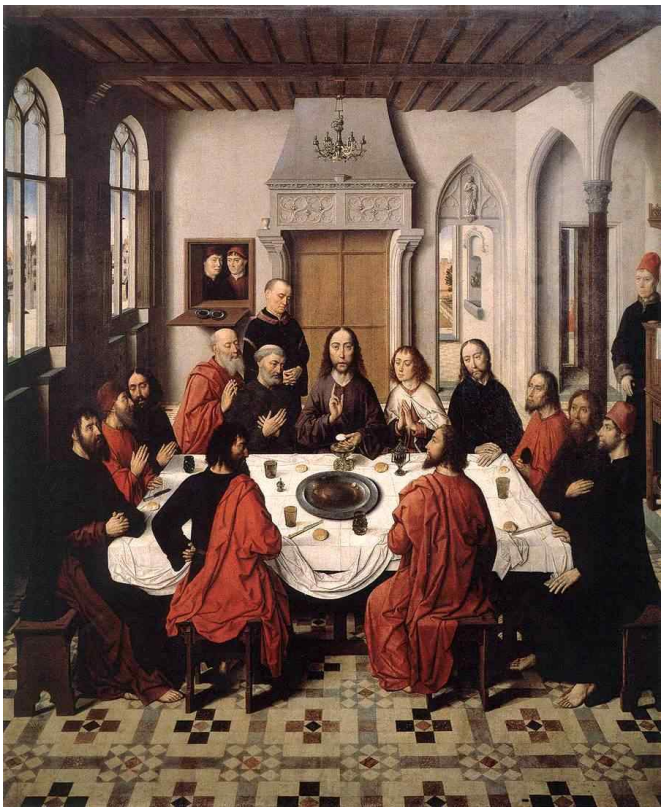
거저 받은 것이지만,
품나게 나누며 사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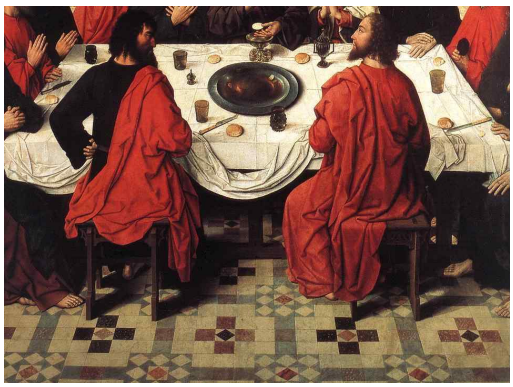
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성화이야기

성체성사 제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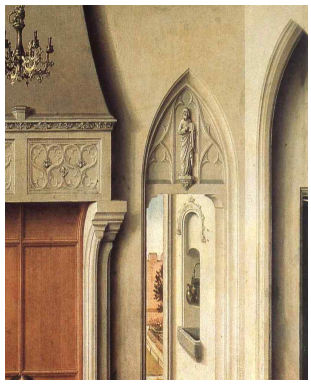


본 작품이 다른 최후의 만찬 그림과 차별되는 점은, 예수님이 성체를 강복하시는 그 순간을 그린 몇 안 되는 그림이기 때문이다. 모든 등장인물은 이 시간, 이 순간을 엄숙히 묵상하는 듯하며, 마치 성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순간이 영원히 그림 속에서 멈춰진 듯 느껴진다.

식탁 위 도구들과 음식은 그 표면이 거울처럼 빛나는 듯, 세부까지 정교하게 표현되었다.

디에릭 바우츠(1415년~1475년)
1464년~1467년 作 / 패널 위 유화, 185X194cm
로이벤, 성 베드로 성당

이 공간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리의 모습과 건물 뒤쪽 자연 풍광의 모습이 어우러져, 닫힌 공간이 아니라 활짝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 왼쪽 작은 공간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 또한 이 공간에 초대되고 있다.



왼쪽 창문 세부도

김은혜(엘리사벳)

가운데 창문 세부도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성체 성혈 대축일: 승리 김재포 신부

◆ 교구장 동정

- 은하수(미사일방어1여단)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2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6월 4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종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종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